



## ‘공정보도의 마지막 지킴이’ 편집위內 노조활동 주목

### ‘긴급진단:포퓰리즘’ 형평성 등 문제점 놓고 열띤 토의 노측 “균형 고려하지 않으면 독자 신뢰 얻지 못한다” 깊은 우려

연합뉴스 노조의 공정보도 활동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출범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다.

노사 5명씩 참여하는 편집위는 매월 한차례 이상 회의나 간담회를 열어 공정보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부간사, 총무, 기협 지회장, 노조 집행부장 1명이, 사측에선 편집상무, 편집국장, 정치에디터, 사회에디터, 정치부장이 구성원이다.

이미 지난 4, 5월 두 차례 회의가 있었고 6월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 7월 초 간담회로 대체됐다.

특히 5월 회의에서는 같은 달 25일 오전 9시10분 출고된 <긴급진단:포퓰리즘> 시리즈 기사의 형평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을 짚는 형식을 취한 이 특집물은 전면 무상급식 허실, 솔깃한 교육공약 붓물,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장밋빛 개발공약(이상 출고 제목) 등 분야별로 포퓰리즘을 진단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애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뽑히고 보자’라는 욕심으로 표만을 의식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인기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 남발로 표심을 유혹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구태를 따끔하게 지적하겠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특집물은 무상급식을 다룬 첫 기사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전반적인 의도가 빛이 바래다는게 노조 측 편집위원들의 일치된 시각이었다. 물론 이 견해는 사전에 상당수 노조원들의 생각을 수렴한 결과였다.



공정보도위원회 이주영 간사

무엇보다 이 특집은 첫 번째 기사(① 전면 무상급식 허실)에서 야당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만을 제목으로 뽑고, 본문 55줄 중 무상급식 공약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은 28줄인 반면, 여당의 대응 공약인 차등제 무상보육의 허를 꼬집는 내용은 8줄에 그쳐 형평을 잃었다고 노조측은 지적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선택도 부적절했다고 노조측은 덧붙였다.

노조 측의 한 편집위원은 “이번 선거 기간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포퓰리즘이라는 제목만 딱 놓고 봐도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사는 어떻게 보면 제목장사인데, 야당의 대표적인 공약을 제목으로 적시해 비난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측의 한 편집위원은 “민주당을 지칭한 게 아니라 ‘안되면 말고’식의 질려대는 공약을 지적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무상급식 대(對) 무상보육이라는 제목도 고려해봤지만,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다 하자는 것이고 무상보육은 일부만 하자는

공약”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이 유라기 보다 전면적 차원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의 취지에 가장 가깝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4건의 특집기사 중 나머지 3건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가운데 유독 이 기사만 이렇게 출고된 것에 대해 거듭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노조 측 편집위원은 “야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를 다뤘으면, 한나라당 쪽에서도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포퓰리즘에 가까운 사례가 무엇인지 찾아서 문제점을 짚어줘 균형적 포장을 했어야 했다”면서 “이것 한 방으로 시장(독자)에서 ‘연합이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사측 편집위원은 “모든 기사에서 기계적인 양시양비론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시비를 가려 문제가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주장해, 회의 내내 노사간 적지않은 인식 차를 노출했다.

앞서 4월회의에서노조측은 6.25 등 다른 기념일과 달리 편집국 차원에서 4.19 혁명 50주년 기획이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기획물의 검토와 생산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에 걸맞은 균형감각을 잃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VIP 메모 사진’ 비(非)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공보위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편집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보도의 험로를 헤쳐 나갈 방침이다.

### <편집위원회 좌석 배치도>



# “권력 눈치보기 위험 수위”

## 전국 지역취재본부원 ‘자기검열 시대 진입’ 우려 ‘노조 감시 강화’ 주문..“본사-지방 차별대우 없애야”

노조 집행부의 전국 13개 취재본부 순회 방문에서 지역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면서도 따끔한 질책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많은 조합원들이 연합뉴스 일부 부서의 ‘정부·여당 눈치보기식’ 기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노조가 감시의 눈을 부릅뜬 것을 주문했다.

조합원들은 미디어오늘이나 기자협 회보 등에 회사의 편집 방향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릴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출입처의 동료 기자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원들은 <긴급진단: 포폴리즘> 시리즈 여야 형평성 논란, 4.19혁명 50주년 기획 기사 미송고, ‘VIP 메모’ 사진 비보도, 강용석 의원 발언과 관련한 미디어오늘 만평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이제 우리 기자들이 데스크의 지시가 없더라도 스스로(권력과 재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기사를 ‘검열’하는 단계에까지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연합뉴스 위상과 존립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갖는 비애와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고민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회사 내 본사-지방간 차별대우를 없애는 데 노조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엄존하는 차별

전국 지역본부 기자들은 눈에 보이는 차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겪고 있다.

일례로 지방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경우 본사에서 기자가 내려가지 않으면 지역기자는 노트북에 카메라, 캠코드까지 들고가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현장을 취재한다.

그러나 본사 기자가 지방 취재를 하면 지역본부에 사진기자와 영상 VJ가 바쁜 탓에 본부의 ‘펜 기자’가 현장에 가서 사진과 영상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사에서 내려간 기자는 글 기

사만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에서 내려간 기자는 연차가 5년차 안팎인 경우가 많고 현장을 담당하는 지역 기자는 10년차 이상인 경우가 다반사여서 많은 지역 기자들이 비애를 느낀다는 것이다.

한 차장급 기자는 “내가 노트북에 카메라, 캠코드까지 들고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동안 본사의 후배기자는 취재원의 발언 내용만 갖고서 짧은 스트레이트 한 줄 처리하고 가는 걸 보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면서 “서울에서는 우리가 짧은 스트레이트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 조합원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명확한 업무 분담을 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쪽에서도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수당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지역에서 경찰서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본사의 경찰기자보다 월 수당이 5만원 적다.

한 경찰기자는 “지방이라 교통비가 덜 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경찰서를 도는 데 수당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당도 수당이지만, 차별 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이밖에 특파원과 해외연수자 선발과정에서도 회사 측의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사 조합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조합원들은 지적했다.

### “연감, CD.앱 전환 검토해야”

최근 모 자치단체 노조간부가 출입기자단 간사를 만나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 판매와 입장권 강매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조합원들은 전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몇 안되는 출판물 가운데 하나인 연합연감은 다른 출판물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지

만 활용도가 떨어져 자치단체 등에서 ‘퇴출표적’이 된 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IT.모바일시대에 걸맞게 연합연감을 CD형태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하면 그 효용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합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지역 조합원들은 조언했다.

### 단독주재기자 주거비지원 현실화해야

단독 주재기자의 주거비 대출 액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도시라도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액(최고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추가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전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세 대신 월세를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단독주재 기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에서 월세로도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주거비와 더불어 시·군 여러 곳을 담당하는 기자들에 대한 유튜브 지원도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함께 1만원에 불과한 평일 당직비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지방의 요구사항이 지난 몇 년간 걸쳐 전달됐지만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조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늘려 강력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또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도 통상 2~3살부터 4~5년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현실을 고려해 최소 3년 이상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 조합원들은 강조했다.

### 이달의 참글상

## 참글상 대상에 고웅석 조합원 특취팀, 김태균 조합원 등 우수상

제168회(6월분) 이달의 참글상 대상에 고웅석 카이로 특파원이 작성한 ‘가자지구 르포 시리즈’가 선정됐다.

고 특파원은 이스라엘이 지난 5월 31일 가자지구행 국제구호선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시점에 한국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특히 한국인 기자가 피랍되기도 했던 가자지구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주민 생활 등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한 점이 공보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특별취재팀 정성호 이정진 신재우 김동규 기자와 김경석 김성용 이충원 홍제성 특파원이 송고한 민선5기 지방자치 점검 시리즈 ‘<이제는 감시다>’기사가 뽑혔다. 이 시리즈는 지방권력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제167회(5월분)는 출판작이 없었고, 제166회(4월분)는 사회부 김태균 조합원이 작성한 “경찰, 서울교육감 선거 정보수집 논란” 기사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 전국 지역취재본부 ‘젊은 피’가 없다

## 순환근무 25~29기 빠져 공백 더 커..본부별 기형적 인력구조 “적정 인력 산정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인 충원을”

해외 취재망과 함께 연합뉴스 경쟁력의 원천이자 쌍두마차로 꼽히는 전국 지역본부 취재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본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대다수 부서들이 연차별로 고른 인력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취재본부에는 특정 연차에 인력이 몰려 있고 일부 본부는 젊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합뉴스 근간을 허무는 것으로, 조기 처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지역취재본부 기자직 116명의 연차별 분포 현황을 보면 1~5년 23명(19.8%), 6~10년 13명(11.2%), 11~15년 31명(26.7%), 16~20년 27명(23.3%), 21년 이상 22명(19.0%)으로 각 지역본부에서 ‘엔진’ 역할을 해야 하는 10년차 이하 기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급별로도 평사원 41명(35.3%), 차장대우 및 차장 36명(31.0%), 부장대우 및 부장 22명(19.0%), 부국장대우 이상 17명(14.7%)으로 지역 인력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전체 평사원 비율이 57.6%에 달하는 것에 비해 지역 취재본부의 ‘젊은 피’(35.3%)는 무려 22.3% 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10년차 이상의 기자들이 새벽부터 경찰서를 돌면서 사건.사고를 챙기는 등 고참 기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지역별로 출입처 인맥과 취재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취재본부는 인력 편중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본부장을 제외한 취재인력 12명의 연차는 22-22-20-16-14-13-12-11-11-9-8-6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22년차 3명, 16년차 1명, 11~14년차 5명이고, 5년차 이하는 한 명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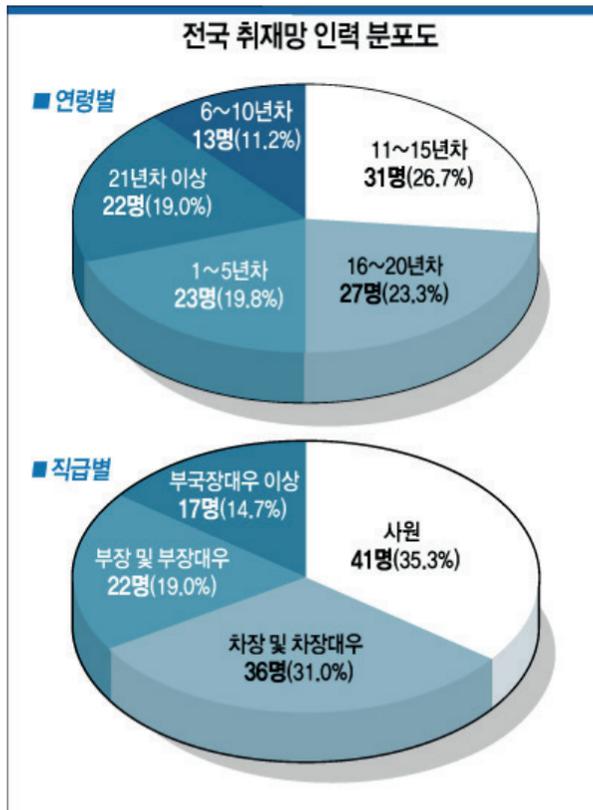
특정 연차에 인력이 몰려 있고, 현장을 발로 뛰는 10년차 이하의 젊은 기자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 본부에선 11~12년차 기자들이 경찰서를 출입하고 있다.

본사 사회부의 경우 1~8년차 기자가 경찰서를 담당하고 11년차 기자가 시경 캡을 맡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11년차 기자로 본부에서 막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본부 인력이 기형적인 역삼각형 구조가 되고 있다”며 “젊은 기자가 없다보니 일선 취재는 물론이고 당직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A본부와 인접한 B취재본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본부장을 제외한 기자직 8명의 연차는 20-16-



15-14-14-12-7-3년차로 나타났다.

이 본부에서는 12~16년차가 전체 기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14년차 기자가 경찰서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일간지나 방송들이 본사의 사회부와 같이 ‘싱싱한’ 젊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된다.

C취재본부도 본부장을 제외한 8명의 인력 구조가 29-15-15-15-14-12-4-1년으로, 5명이 12~15년차에 몰려있다.

지역본부의 기형적 인력 구조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특히 연합 기수 25기부터 29기까지 이뤄진 지방순환근무가 지난해부터 폐지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해졌다.

전국 취재본부의 조합원들은 “한창 현장을 누벼야 할 10년차 이하 기자들이 부족한 것이 당연한 문제점”이라며 “산발적으로 지방 인력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본부별로 적정 인력을 산정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대출한도 상향 후 신청자 몰려

### 500만→700만원으로올려.. 이율도 4.0%→3.5%로 낮춰

노동조합이 6월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최고 700만원으로 높인 뒤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대출 현황은 13명이 6천200만원을 신청해 전달인 5월(4명, 1천3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등 5개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최고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고,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청할 때는 주택 매매.전세계약서 등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율도 연 4.0%에서 3.5%로 낮췄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최장 10개월, 500만원과 700만원은 최장 15개월이다. 상환액은 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조(☎ 398-3620)로 문의하면 된다.

알림			
● 경조사 지급액 ●			
<b>경조비</b>			
구분	조합	회사	사우회
본인 결혼	10만원	50만원	30만원
자녀 결혼	10만원	30만원	20만원
부모 회갑	10만원	20만원	10만원
<b>축의금</b>			
배우자 부모 회갑	10만원	20만원	10만원
부모 칠순	10만원	20만원	-
배우자 부모 칠순	10만원	20만원	-
출산(본인, 배우자)	5만원	10만원	-
배우자	20만원	100만원	50만원
부모	20만원	100만원	50만원
배우자 부모	20만원	100만원	50만원
<b>조의금</b>			
자녀	10만원	100만원	30만원
승중상	10만원	30만원	20만원
형제·자매	10만원	50만원	-
배우자 형제·자매	10만원	50만원	-
<b>위로금</b>			
본인 입원	10만원 (2주 이상)	10만원 (7일 이상) 20만원 (15일 이상)	10만원 (1주 이상) 20만원 (2주 이상)



최전선에서

- 남아공월드컵 취재기

# ‘별동조’로 남아공 훑어..한국 취재진 중 가장 많이 이동 北대표단 南보다 고급호텔 묵어..‘외신 北조롱’ 한심.몰상식

많이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극전사들과 동행하는 ‘본진’에서 벗어나 상대국과 북한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는 ‘별동조’였습니다. 남아공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 아프리카 최고 상공업도시 요하네스버그, 무역항 더반과 포트엘리자베스, 빈민촌 템비사 등지를 다녔습니다. 한국 취재진 중 가장 많이 이동한 기자로 꼽힐 것입니다.

보통 장기출장을 다녀오면 목격한 현상과 들은 말을 하나로 꿰어주는 ‘주제’가 저절로 생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토막토막 단상만 남네요.

고 레드카드와 4강 출전권을 바꿨습니다. 보통 한국을 이긴 상대국의 선수는 알미운데 저는 당시에도 수아레스가 하나도 안 미웠습니다.

잘 해주는 사람 앞에 약해지는 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월드컵 취재에서 가장 힘들 때 도와준 게 우루과이 축구협회와 선수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짓자마자 저는 우루과이 캠프가 있는 킴벌리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기사를 마감하고 한 시간 정도 눈을 붙이다가 짐을 싸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안개 탓에 비행기 착륙이 계속 연기돼 킴벌리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로 깨진 날이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오더니 북한 선수들에게 뭘 좀 물어달래요. 북한 선수와 말이 통하는 건 한국 기자밖에 없으니까요. 내용을 들어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귀국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묻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자회견에서도 온갖 헛소리가 난무하는 통에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김정일이 짰느냐, 3전 전패하면 탄광에서 강제노동해야 하느냐, 선수 일부가 망명했느냐 등등 조롱이 넘쳐났지요. 일국 대표팀을 몰상식 자체로 단정하고 해외토픽만 찾는 거예요. 한심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였죠. 정체 불명의 외신을 번역

해 북한에 대한 조롱을 노골적으로 전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될 풍문을 마구 써댔죠. 허위 사실이 난무했습니다.

북한이 대패한 게 빈곤 때문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대표팀 숙소가 빈민가에 있고 강냉이 국수를 먹고 뛰었기 때문에 참패가 예고됐다는 얘기였어요. 기가 막히더라구요. 북한 대표팀 숙소는 한국 숙소보다 나은 고급호텔이었어요. 북한 선수들이 잘 먹고 훈련도 잘 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 ## ‘집단 이중 인격’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자들의 행태가 그랬습니다. 취재진은 한국의 16강 진출이 좌절되리라고 노래를 부르던 ‘안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태극전사들이 골을 넣을 때는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도나도 풍기는 발냄새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과로와 향수, 우울증 등의 상태가 냄새를 통해 확 실체로 다가오는 건 참으로 ‘시적’이었습니다. 출장을 떠난 지 한달이 가까워질 무렵부터는 대다수가 양말을 사나흘씩 신고 다녔지요. 폭 자고 싶고 식구들도 보고 싶고 거나하게 취해서 밤 나들이도 하고 싶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르헨티나한테 4골 얻어맞은 건 이런 면에서 분명 호재였지만 박주영, 염기훈에게 육두문자는 왜 날리는지.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고 주문을 걸어놓고도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왜 환호를 하는지.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석패했을 때 탄식은 왜 쏟아놓는지. 집에 가고 싶다면 한국이 출전에 그치면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집에 가게 됐는데도 한숨을 푹 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싫으면서 좋은 순간이 많았고 좋으면서 싫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장재은(스포츠레저부) 조합원

우루과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했고 짜증 때문에 눈이 시뻘겋습니다. 상대국 기자라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취재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 다워야 사람입니다. 모두가 “먼 길을 왔다”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감독이 스페인어만 했지만 우루과이의 AFP기자가 영어로 친절하게 통역도 해줬습니다. 공항에서 노숙하고 건조한 초원을 달리면서 쌓인 피로와 짜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음날에도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손님 왔다고 뜨거운 커피를 내오면서 포틀란(!)과 수아레스(!)까지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례대로 씩씩 웃으면서 조곤 조곤 얘기를 해줬지요.

## ## “수아레스야. 요 이쁜놈!”

귀국한 뒤 우루과이와 가나의 8강전을 TV로 보면서 함성이 저절로 터졌습니다. 한국과 16강전에서 두 골을 넣은 수아레스가 골대 밑에서 손으로 공을 쳐내

## ## 북한 대표팀이 괴물이냐고!!!

기자와 선수들이 경기 후에 어울리는 믹스트존에서 어떤 사람 낯방망이를 후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북한이 포르투갈에 7-0으

## ## 자랑스러운 연합 가족들

이동철 축구팀장은 일인이역으로 몸이 부서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기자단 간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과 동행하는 본진 기자만 80명이었습니다. 기자 규모가 그 정도면 벼룩 서 말 풀어놓은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요. 취재와 기사 작성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자단까지 관리하느라 혼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이동, 식사, 취재계획 등을 일일이 조율했어요. 한국의 첫 원정 16강이 각종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대한민국에 전달된 데는 이 팀장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봅니다.

이 팀장과 함께 본진에서 신속하고 예리한 기사를 마구 뽑아낸 배진남 기자, 힘한 지역을 도맡아 돌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은 이영호 기자, 능숙한 영어 구사로 타사에까지 입과 귀를 서비스한 해외국장동우 기자. 출고 곳은 날씨속에서 멋진 사진을 보낸 배재만, 이정훈, 서명곤 기자. 피파의 취재 규제 때문에 소재를 발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영상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훈련장과 경기장을 돌던 한경훈 기자. 항상 안위를 걱정해주시던 최고참 권정상 특파원. 저는 대회 내내 모두가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고맙습니다.